

문화

# 한국 작가들 중국 무대로 대작 준비

한국 작가들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작가들이 중국에 체류하며 취재활동을 하거나 중국을 무대로 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어 새로 나올 작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우선 주목을 끄는 작가는 지난해 장편소설 '강남몽'(창비 펴냄)을 출간한 소설가 황석영(68)씨. 5·18 참상을 세상에 알리며 광주와 끈끈한 연을 갖고 있는 황씨는 최근까지 중국에 머물며 신작을 준비해왔으며 탈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 문학동네에 따르면 황씨의 신작 장편소설은 '꽃'으로 제목이 정해졌으며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문학동네는 황씨의 차기작에 대해 "중국의 대도시 주변 쓰레기 매립장을 배경으로, 버려진 존재들과 버려진 물건들에 대해 얘기하는 작

## 황석영 '꽃' 출간 예정... 조정래·고은 차기작 구상

## 황지우 시인, 길림대서 강의하며 작품자료 취재

품'이라며 "물신지옥"을 형상화한 소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전작 '강남몽'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한차례 곤욕을 치른 뒤 출간되는 것이라 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황씨가 이번 소설로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대기업의 비리와 권력자들의 비리를 신랄하게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비춤'(문학의문학 펴냄)을 내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가 조정래(68)씨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차기작을 구상중이다.

순천 출생인 조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위치를

바꾸고 있는 중국을 무대로 장편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21세기 한국의 운명과 함께하는 중국을 소재로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문학은 분단 때문에 북쪽 이상의 땅을 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무대가 남한으로 국한되는 비극이 있다"며 "남한에 국한된 문학적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의 중국 취재에는 부인 김초혜 시인도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작시 '만인보'의 저자 고은(78) 시인도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작품화 가능성이 크다.

최근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영원히 떠나겠다"며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동아시아론'을 주장하고 있는 고 시인은 향후 우리 겨레의 나아갈 대안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역설해 왔다.

고 시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구가 아닌 실제로서 아시아를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가 현재 고 심하고 있는 화두"라고 언급한 점도 그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해남 출신으로 한예종 총장을 역임한 황지우(59) 시인도 총장직 사임 후 강연활동에 주력해오다 지난해 8월 중국 지린성의 장춘에 있는 길림대학으로 건너가 강의와 작품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어 강습차 이곳에 머물고 있는 황씨는 북한주 지역 등 중국 전역에서 취재활동중이며 오는 8월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황석영〉



〈조정래〉



〈고은〉



〈황지우〉

## 문화재단, 197건 문화육성사업에 7억 지원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이 1일 2011년 지역문화예술지원육성사업 선정 대상과 지원액을 확정, 발표했다.

재단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 심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올해 지원 규모는 197건에 7억1700만원으로 지난해 157건, 6억3200만원보다

건수는 40건(25%), 액수는 8500만원(13.4%) 늘었다.

장르별로는 문학 43건, 연극 12건, 무용 14건, 음악 27건, 사진 11건, 국악 22건, 미술 50건, 다원예술 18건이다.

올 심의에서는 최저 지원액인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 건수가

43건에서 15건으로 줄어든 반면 200~500만원 수혜자는 대폭 늘었다.

심사위원들도 변화가 있었다. 재단 측은 이번 심의에서 타 지역 심사위원들을 대폭 위촉했다.

재단은 국내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 52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3분의 1을 타 지역 인사로 배정했다. 소설가

김영현, 무용가 안은미, 대중음악평론가 강현, 미술평론가 고충환씨 등이 대표적이다.

심사위원들은 시민문화환수 지원, 전문예술창작지원, 신진예술가창작지원 등 사업 기획의도에 적합하지 않았던 기획서가 많았던 점을 감안, 사업구조 개편과 재단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참신한 기획안이 없고, 짧은 예술인들의 참여가 적은 점 등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심의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www.gi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향 새 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 첫번째 선물



내달 1일 취임연주회... 피아니스트 이진상 협연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베토벤 협주곡 '황제'



〈이진상〉

새로운 광주시향은 어떤 레퍼토리로 새 시즌을 시작하까.

1일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진두지휘하게 된 크리스티안 루드비히(33) 상임지휘자가 광주 시민을 위한 첫번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오는 4월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취임연주회에서 선보이는 곡은 낭만과 교향곡

의 명작으로 꼽히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다.

'어느 예술가의 생애의 에피소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환상교향곡'은 베를리오즈가 자신의 실연 경험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이다.

신임 지휘자가 취임 인터뷰에서 낭만과 작곡가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터라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기대된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협연 무대도 선보

인다.

협연자로 나서는 이는 젊은 피아니스트 이진상(31)씨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쾰른 음대에서 수학한 이씨는 지난 2009년 스위스 계사 안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씨는 이 경연에서 모차르트상과 슈만 상, 관객상도 함께 받았으며 홍콩 국제피아노 콩쿠르(2008), 독일 쾰른 국제 피아노콩쿠르(2005)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10

## 미디어 아티스트 권승찬씨 내달 19일까지 개인전

사진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권승찬씨가 3일~4월19일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10'을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작업 성과를 모아 선보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 검색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활용해 관람객이 참여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등 이색 작품들이 눈에 띈다. '당신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연작은 사진이 촬영된 장소를 관람객들이 구글어스를 통해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작품이다.



'당신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또 이번 전시의 부대 행사로 담양 죽녹원 등지에도 나이트박스 형태의 작품을 설치하며, 오는 20일, 27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호남대 미술대학과 같은 대학원을 나온 뒤 5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특별한 그것'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10-8625-309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국전통예절문화원, '알기 쉬운 생활예절' 출간

우리 겨레의 예절과 미풍양속의 보전에 앞장서 온 한국전통예절문화원(원장 김중환)이 최근 일상생활 속 예절을 알기 쉽게 풀어쓴 '알기 쉬운 생활예절'을 출간했다.

책은 유치원에서부터 어른까지 지켜야 할 생활 예절을 항목별로 엮은 것으로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교

육 지침서로 기획됐다. 웃어른을 향한 인사법 등 기본예절을 비롯해 친척간의 손수와 호칭, 관혼상제에 따른 각종 예법과 절차 등을 10장으로 나눠 실었다. 또 태교(胎敎)와 묘지제도 등에 대한 내용도 옛 원전에 근거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관련 사진·도판을 곁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김원장은 "수십 년간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예절생활 단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관의 유래와 사적 변천, 예절상식과 예절용어 등도 부록으로 담았다. <대신인쇄출판 1만9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Ecole du Vin

## '에꼴 뒤 뱅' 입문과정 : 6기 수강생 모집

광주 와인 문화 일인지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진행되는 와인 스쿨 '에꼴 뒤 뱅'의 입문 과정이 오는 3월 8일(화)에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소 와인을 배우기 희망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강좌를 통해 와인이 주는 큰 행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와인파트너 홈페이지(www.winepartner.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1년 3월 8일(화) 부터 총 4회 ; 화요일 오후 7시 50분-10시**  
**장소 : 금수장관광호텔 (계림동,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사정에 따라 강좌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원 : 선착순 18명 / 강의비 : 20만원 문 의 : 금수장관광호텔 062-525-2111**

Wine partner  
와인파트너

http://cafe.naver.com/winepartner

**금수장관광호텔**

**강사: 권 홍 식**

- 금수장관광호텔 전무 / 소울리에
- 한국소믈리에협회 운영위원
- 한국소믈리에학회 상임이사 (소믈리에 자격시험 검증, 위원)
- IBWE(인터네셔널 보르도 와인 에듀케이터) 인증 와인 강사

moviehelic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혈투 (15세)	1관 알미엔 오메가3D (전체) / 아이엠 넘버포 (12세)
2관 블랙스완 (18세)	2관 블랙스완 (18세)
3관 만추 (15세)	3관 아이들 (15세)
4관 아이엠 넘버포 (12세)	4관 라퐁젤3D (전체)
5관 127시간 (15세)/라퐁젤 (전체)/연노운 (15세)	5관 혈투 (15세)
6관 알미엔 오메가3D (전체)/연노운 (15세)	6관 클러브 (전체)
7관 아이들 (15세)	7관 매카닉 (18세)
8관 아이들 (15세)/그대사랑합니다 (15세)/행복 외가 (전체)	8관 라퐁젤 (전체)/연노운 (15세)
9관 조선명탐정 (12세)	9관 그대사랑합니다 (15세)/알미엔 오메가 (전체)
10관 매카닉 (18세)	10관 조선명탐정 (12세)

조조 영화하면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최장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최고급관

1관 아이들 (15세)	1관 아이들 (15세)
2관 아이엠 넘버포 (12세)	2관 아이엠 넘버포 (12세)
3관 매카닉 (18세)	3관 매카닉 (18세)
4관 그대사랑합니다 (15세)/연노운 (15세)	4관 그대사랑합니다 (15세)/연노운 (15세)
5관 만추 (15세)	5관 만추 (15세)
6관 혈투 (15세)	6관 혈투 (15세)
7관 127시간 (15세)/조선명탐정 (12세)	7관 127시간 (15세)/조선명탐정 (12세)
8관 알미엔 오메가 (전체) / 아이들 (15세)	8관 알미엔 오메가 (전체) / 아이들 (15세)
9관 블랙스완 (18세)	9관 블랙스완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만추 (15세)/조선명탐정 (12세)
2관 그대사랑합니다 (15세)
3관 연노운 (15세)
4관 매카닉 (18세)
5관 라퐁젤3D (전체)/127시간 (15세)/혈투 (15세)
6관 아이엠 넘버포 (12세)
7관 아이들 (15세)
8관 블랙스완 (18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